

수 신 : 전회원

참 조 :

제 목 : 상장회사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의무 확대 관련 상장회사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안내)

---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장회사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2011년도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 체결에 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1)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감사의뢰인인 경우 상장회  
사의 특수관계자도 감사의뢰인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회사를 감  
사하는 감사인은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윤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독  
립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그동안 윤리기준의 부칙에서 상장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때부터 준수하도록 그 시행이 유예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우리  
나라의 모든 상장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연결기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됨  
에 따라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2011년부터는 감사의뢰인인 해당 상장회사의 특  
수관계자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2) 2011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자 하는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  
결 이전에 해당 상장회사뿐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재무적 이해관계, 고  
용관계 및 비감사업무의 제공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시어 윤리기준의 독립  
성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 이전부터 상장회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감사인은 2011년 1월 1일  
현재 감사의뢰인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보유중인 재무적 이해관계, 수행 중  
에 있는 임원직 및 제공 중인 금지된 비감사업무를 본회가 2010년 12월 31일에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한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한 시기간에 해소 또는 완료  
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건과 관련하여 본회는 지난 2010.12.31일자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첨 부 : 1.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 신설 안내(공문) 1부.  
2.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 신설 내용 1부. 끝.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 제2011-10189호 ( 2011-02-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85-10

담당 김미정      전화 02-3149-0284      전송 02-3149-0289      /      cupit1004@kicpa.or.kr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 신설 안내

---

1. 귀 기관(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 및 본회 윤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을 신설한 바, 이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규정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 신설

나. 개정이유 : 별 첨

다. 개 정 일 : 2010. 12. 31

라. 시 행 일 : 2010. 12. 31

첨 부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 신설 내용 1부. 끝.

수 신 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증권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산운용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전회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 신설

2010년 12월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 신설

## 1. 경과조치 등 신설 이유

- 그동안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일부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 왔던 현행 부칙 2 가 2011 년 1 월 1 일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모든 상장회사와 일부 비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대부분의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장회사 등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등은 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윤리기준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 부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2011 년 1 월 1 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등 재무적 이해관계, 수행 중인 임원직, 진행 중인 비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이러한 이해관계나 비감사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 윤리기준의 위배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
  - 회계법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 및 그 직계가족이 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재무적 이해관계는 2011 년 6 월 30 일 이전에 처분하여야 함.
  - 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의 상법상 감사 및 사외이사 등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소속 구성원은 2011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해당 특수관계자의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에 해당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함.
  - 2011 년 1 월 1 일 현재 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 중인 금지된 비감사업무는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감사의뢰인의 모회사 등 - 감사의뢰인과 상향 및 자매회사관계(upstream and over)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비감사업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독립성 규정을 윤리기준의 개념체계 접근법에 부합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의뢰인의 모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일부 비감사업무는 감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의 수임자체를 금지할 만큼 심각한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독립성 개념체계 접근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비인증업무를 감사의뢰인의 모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 독립성 개념체계 접근법은 특정 상황이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해당 위협을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임.

- 현행 윤리기준에는 이러한 업무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의 독립성 규정이나 개정 국제윤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 간에 상이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제윤리기준은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지 않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일부 비감사업무의 경우에는 감사의뢰인의 모회사 등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

## 2.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p>&lt;신설&gt;</p> <p>부칙(2009. 2. 25.)</p> <p>1. (시행일) 이 윤리기준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06.7.12)</p> <p>2. (적용례) 이 윤리기준의 문단 290.21, 해석 및 용어의 정의에서 상장회사 등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를 독립성 준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검토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lt;2009.2.25. 개정&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u>부칙(2010. 12. 31.)</u></p> <p><u>1. (시행일) 이 윤리기준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u></p> <p>부칙(2009. 2. 25.)</p> <p>1. (시행일) 이 윤리기준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06.7.12)</p> <p>2. (적용례) 이 윤리기준의 문단 290.21, 해석 및 용어의 정의에서 상장회사 등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를 독립성 준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검토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lt;2009.2.25. 개정&gt;</p> <p><u>2-1.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u>  <u>2011년 1월 1일 현재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계속 감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 및 그 직계가족 등은 그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2011년 6월 30일까지 해소하여야 한다.</u>  <u>&lt;2010.12.31. 신설&gt;</u></p> <p><u>2-2.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의 임원직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u>  <u>2011년 1월 1일 현재 재무제표감사의</u></p>

<p>&lt;신설&gt;</p>	<p>퇴인(계속 감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특수관계자의 임원직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등의 소속 구성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해당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lt;2010.12.31. 신설&gt;</p>
<p>&lt;신설&gt;</p>	<p>2-3. (재무제표감사의퇴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 중인 비인증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월 1일 현재 재무제표감사의퇴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비감사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착수하여 해당 비감사업을 제공 중에 있는 회계법인 등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비인증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lt;2010.12.31. 신설&gt;</p>
<p>&lt;신설&gt;</p>	<p>2-4. (재무제표감사의퇴인의 모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관한 적용례) 회계법인 등은 (1) 제공되는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감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기검토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고 (2)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비인증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감사의퇴인의 특수관계자(감사의퇴인이 아님)에게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p> <p>(1) 감사의퇴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감사의퇴인이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p> <p>(2) 감사의퇴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p>



	<p>(3) 감사의뢰인과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자매회사)로서, 동 회사와 감사의뢰인이 이들을 지배하는 회사에게 각각 모두 중요한 경우 &lt;2010.12. 31. 신설&gt;</p>
--	---